

케이스별로 살펴보는 라미네이트 치료

박 종 옥 / 드림치과

최근 라미네이트의 제작은 기존 방식인 수제작을 통한 build-up 방식과 CAD/CAM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가공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도 feldspar, lithium disilicate 등의 재료가 있으며 한가지 재료 또는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과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단점을 이야기 하려 합니다.

라미네이트는 제작하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서 제작 기간과 결과물의 특성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Build-up을 통한 수제작의 경우 짧게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 기공사가 있어야 합니다. 수제작을 통해서 lithium disilicate 단일 재료로 만들수도 있고 lithium disilicate 위에 feldspar를 이용해서 build-up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화성 모델을 이용해서 feldspar만으로 축조도 가능합니다.

CAD/CAM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제작 시간입니다. 필요에 따라 당일 제작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디자인적으로 cut-back을 통해서 그 위에 feldspar를 축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단축이라는 최대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축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D/CAM 시스템에 의한 라미네이트 제작은 대부분 단일재료로 만들어지며 이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CAD/CAM 시스템도 어떤 세라믹 블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공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작 방식과 재료를 케이스에 맞게 잘 이용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것이 치아성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 방식에 따른 장단점, 재료에 따른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케이스에 맞는 제작 방법과 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레지던트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석사
- * 현, 드림치과의원 원장